

故 李泰錫 신부 흉상 제막식

2012년 6월 7일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2012년 6월 13일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제대학교
INJE UNIVERSITY



인제대학교 백병원
INJE UNIVERSITY PAIK HOS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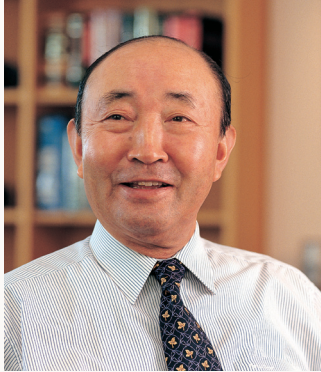
故 李泰錫 신부

1962. 9. 19 ~ 2010. 1. 14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기념사



우리 모두 故 李泰錫 신부의 숭고한
생명존중과 인간사랑, 소통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4 본교는 2012년 白病院 창립 80주년 및 仁濟大學校 개교 33주년을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3회 졸업생이며 인제대학교와 백병원의 창립정신인 '仁德濟世, 仁術濟世'를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몸소 실천한 故 李泰錫 신부의 숭고한 생명존중과 인간사랑, 소통과 나눔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후배들에게 길이 전하기 위해 이태석 신부 흉상 제막식을 갖고자 합니다.

故 李泰錫 신부는 교육자, 음악가, 의사, 신부로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원활한 소통,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나눔, 모든 생명을 존중하면서 무한한 인간사랑 등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또한 반목과 갈등, 내전으로 얼룩진 남수단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治癒의 리더십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부님의 봉사와 희생의 삶은 이제 우리 모두의 龜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흉상 제막식이 우리 모두 故 李泰錫 신부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

백낙환

기념사



故 李泰錫 신부의 獻身적인
사랑과 나눔을 記憶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努力해 나가겠습니다.

仁濟大學校 開校 33週年과 白病院 創立 80週年이 되는 뜻 깊은 해에 仁濟大學校와 白病院의 創立精神인 仁術濟世, 仁德濟世를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몸소 실천한 李泰錫 신부의 生命尊重과 人間사랑, 崇高한 사랑과 나눔의 精神을 기리고자 李泰錫 신부의 胸像 除幕式을 舉行합니다. 仁濟大學校의 영원한 아름다운 靑年으로 아프리카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간 李泰錫 신부의 발자취를 記憶하고 追念하기 위해 仁濟大學校와 白病院 仁濟家族 모두가 精誠을 모아 오늘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大學의 자랑스러운 3회 卒業生인 李泰錫 신부는 오랜 內戰과 疾病, 굶주림으로 얼룩진 아프리카 最貧國 남수단에서 醫師로서 聖職者로서 敎育者로서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하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이의 모습으로 奉仕한 그의 獻身적인 삶은 우리 가슴속에 龜鑑이 되어 항상 남아 있습니다. 李泰錫 신부는 仁濟大學校 醫科大學을 졸업한 뒤 2001년 司祭敍品을 받고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즈에 病院을 지어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患者를 돌보는 8년간의 獻身的 奉仕를 하셨습니다. 2010년 1월 대장암으로 善終하기 전까지 톤즈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音樂과 敎育, 宗教와 醫療로 獻身하셨습니다.

仁濟大學校는 李泰錫 신부의 胸像 除幕을 통해 고귀한 犧牲으로 우리에게 希望과 勇氣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떠난 이 신부님의 뜻을 繼承하여 醫師 李泰錫을 輩出한 母校로서 그의 사랑과 나눔을 記憶하고 實踐해 가는 仁濟家族 모두가 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인제대학교 총장

이원호



故 이태석 동문의 사랑과 봉사 정신이 인제인의 마음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백낙환 이사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인제의대 동문 선후배 여러분. 인제대학교 개교 33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고 이태석 동문이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인제의대 재학생 및 동문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고 이태석 동문의 흉상을 맞이합니다.

고 이태석 동문은 1987년 인제의대를 졸업한 뒤 미래가 보장된 편한 길을 마다하고 더 큰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까지 치료하였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워 미래를 개척하는 교육자로서, 전쟁으로 상처 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가로서, 진정 인간을 사랑하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인제인으로서 그와 한때를 같이 보냈다는 것을 무한한 영광이자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모교를 떠난 지 25년 만에 고 이태석 동문이 우리 의과대학 교정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록 몸은 단단한 흉상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오롯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산 고 이태석 동문의 숭고한 정신은 이전보다 더 강력히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제의대 의예과 수업 시간에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온 존 마엔 루벤과 토마스 타반 아코트 학생을 보면서 고 이태석 신부의 기적을 목도하였습니다.

고 이태석 동문의 사랑과 봉사 정신이 인제인의 마음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거행되는 고 이태석 동문 흉상의 제막식이 인제인의 인덕제세와 인술제세 정신을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고 이태석 동문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발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인제인의 정신을 영원히 기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존경하는 백낙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장 **염호기**

축사



신부님의 흉상이 신부님의 헌신적 삶을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표상으로 받아들여
지기를 바랍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라는 저서에서 “예수님이라면 이곳(톤즈)에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까, 성당을 먼저 지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신부님께 신부님을 공경하는 뜻으로 흉상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어떠하냐고 여쭙 보면 아마도 겸연쩍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것입니다. 이같이 신부님은 겉모양보다는 내실을 추구하였던 실용주의자이셨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여전히 톤즈에 살아 계신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지금도 저는 고민거리가 생길 때면 과연 신부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하며 마음속에서 신부님과 상의를 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겸연쩍어 하실 게 분명한 신부님처럼 이 분의 흉상이 아직은 생소하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신부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깨닫는 변화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아가 제가 그냥 무심코 알고 지냈던 생전의 신부님을 넘어서 국민적인 큰 인물이 되셨습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의 흉상을 승배의 대상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사신 신부님의 헌신적 삶을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표상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제대학교의 이태석 신부님 흉상 제막식이 계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나눔의 실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 이사장 **이재현**

인사말



살레시오회 형제 이태석 신부님의
홍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그의 마음을
답기를 바랍니다.

친구, 인재대 동문, 귀감이 된 이, 정신적인 존재가 되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태석 신부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살레시오회는 그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진지하게 걸어야 할 길을 생각하던 그가 열혈 청년이던 시절, 살레시오회를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선택을 통해 돈보스코 성인의 사명 안에서 평생토록 꿈, 희망, 기술, 면허, 사명, 재산, 그리고 의지까지 나누기로 서약하였고, 그래서 살레시오회 안에서 저에게 형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제가 살레시오회의 형제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홍상을 만들어 잘 보이는 곳에 두기로 하여 오늘 그 제막식을 합니다. 제가 감히 형제라고 부르는 이 신부님의 모습이 잘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뿐 아니라 마음까지, 단순히 마음뿐 아니라 영성까지도 잘 표현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했고 열정이 넘쳤던 사람. 설렘설렘 하는 것 같지만 결기가 있었던 사람. 청소년들을 향한 극진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되뇌던 이태석 요한 신부님이 이 안에 들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레시오회 이태석 신부님의 홍상을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홍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또 이 앞을 지나는 이들이 그의 마음을 답기를 바랍니다.

살레시오회 선교국장 **장동현** 신부

인사말



오늘은 하늘나라에 있는
이태석 신부도 무척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태석 흉상이 고 이태석 신부의 모교에 세워지게 됨을 저희 유가족들은 큰 영광으로 여기며 백낙환 이사장님과 인제대학교, 그리고 백병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늘나라에 있는 이태석 신부도 무척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태석 신부가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또한 국민적 사랑을 받는 것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믿는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이태석 신부가 아무런 조건 없는 참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참사랑의 삶을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나누는 삶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나누는 삶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열악한 아프리카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 주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의 흉상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게 되겠지요.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은 이태석 신부에 대한 기억이 이태석 신부가 한 일보다는 그의 정신을 살아내는 삶의 기억으로서 사람들에게 이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2, 제3의 이태석 신부가 그의 모교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유가족 모두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폰벤투알 프란치스코회 이태영 신부



故 이태석 신부

(李泰錫, Fr. John Lee Taeseok)

1962년 9월 19일 ~ 2010년 1월 14일

의사, 살레시오회 수도사제

1962년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출생

1981년 경남고등학교 졸업

1987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제3회)

1988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턴 수료

1990년 육군 군의관 전역(대위)

1991년 살레시오회 입회

1994년 광주가톨릭대학교 졸업

1999년 아프리카 남수단 와랍 주 톤즈(Tonj) 방문 후 선교 결정

2000년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졸업

(Università Pontificia Salesiana)

2001년 사제 서품

톤즈 선교 · 의료 · 교육 활동 시작

2005년 제7회 인재인성대상 특별상 수상

2006년 제23회 보령의료봉사상 수상

2009년 저서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출간

제2회 한미자랑스런의사상 수상

2010년 선종

제1회 한국방송공사(KBS) 감동대상 대상 추서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강론 모음집 『당신의 이름은 사랑』 출간

소년 이태석

“십자가 앞에 꿇어 주께 물었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총부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 물었네.
 세상엔 죄인들과 달한 감옥이 있어야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번민해야 하느냐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님 말씀하셨지.
 사랑, 사랑, 사랑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 위해.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 이태석 신부가 중학교 3학년 무렵 작사·작곡한 곡 「묵상」



- ① 중학생 시절(뒷줄 중앙), 송도성당
- ② 고등학생 시절(들째 줄 왼쪽)
- ③ 초등학교 시절
- ④ 중학생 시절
(왼쪽부터 동생, 누나, 이태석 신부)

의사 이태석

“지금도 환자들이 진료실에 들어오면 5초 정도는 환자들이 걷는 모습을 관찰하고 10초 정도는 아무 말 없이 환자들의 눈을 물끄러미 들여다본다.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사실은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진실된 순간이다.”

— 이태석 저,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2009, 1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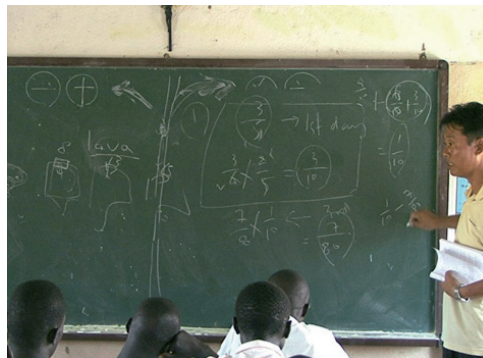


교사 이태석

“요즈음은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까, 성당을 먼저 지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 것 같다. 사랑을 가르치는 성당과도 같은 거룩한 학교, ‘내 집’처럼 느껴지게 하는 정이 넘치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말이다.”

— 이태석 저,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2009, 137쪽

14



사제 이태석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것의 으뜸은 사랑입니다.”

— 이태석 저, 『당신의 이름은 사랑』, 2011, 227쪽



仁濟人 이태석



① 1985년 학교 의료봉사(맨 뒷줄 빨간 셔츠) ② 2005년 제7회 인제인성대상 특별상 수상 ③ 1987년 의과대학 졸업 앨범
④ 2005년 모교 특강

작가소개 金永元

김영원은 1947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1975) 및 동 대학원(1977)을 졸업하였으며, 국내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다. 아시아 국제미술제(1983, 데카), 올림픽기념 한국현대미술전(1988,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미술-오늘의 상황(1990), 한일 현대조각전(1983~1991, 서울·후쿠오카)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가하였고, 동아미술상(1980)과 선미술상(1989)을 수상한 바 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지명공모에 당선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종대왕상을 제작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토탈미술관, 신천지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과 사단법인 한국조각가협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약력

경력

- 1981년 충북대학교 사범대 미술교육과 전임교수
- 1984년 현대미술 초대작가
- 1988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 1995년 (현)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
- 2000년 홍익대학교 환경조각연구소 소장
- 2002년 홍익대학교 환경미술연구소 소장
- 2004년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심의위원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
- 2005년 성남조각회 초대회장
- 2008년 제8대 조각가협회 회장
- 2010년 (현)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상훈

- 1980년 제29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특선
제7회 한국미술대전 우수 프런티어상
제2회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 1981년 제30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특선
- 1989년 선미술상
- 1997년 보국탑 기념 조형물 지명공모 당선
- 1998년 3대 국새 지명공모 당선
- 2002년 제16회 김세중조각상
- 2008년 제7회 문신미술상
- 2009년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지명공모 당선



감사의 글



故 李泰錫 신부의 흉상 제작과 제막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李泰錫 신부가 2010년 1월 14일 선종하신 이후 신부님의 아름다운 삶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를 실천하고자 仁濟大學校와 白病院의 仁濟家族, 의과대학 동문과 후배 학생들은 그 동안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 2010년 2월 17일 제1회 이태석 추모 영상전 및 추모 특강
- 2010년 3월 11일 (사)수단어린이장학회 장학 후원 협정식
- 2010년 8월 27일 영화 '울지 마 톤즈'(구수환 감독) 시사회 참석 후 인제가족과 재학생 단체 관람
- 2010년 10월 18일 유화 '톤즈의 슈바이처'(강현주 화백) 의과대학 1층 전시
- 2011년 3월 2일 이태석 신부의 삶과 정신을 기념하는 의료인문 교육과정 신설
- 2011년 5월 7일 제1회 부산 서구 남부민2동 '이해·배려·나눔의 참사랑 실천의 날' 행사 참여(의료봉사)
- 2011년 6월 1일 (사)부산사람 이태석기념사업회 창립 참여
- 2011년 6월 2일 제2회 이태석 추모 영상전
제1회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 '의사·신부 이태석의 삶과 그 의미'
- 2012년 1월 7일 제1회 이태석 리더십 청소년 아카데미 주관

2012년 1월 30일 한국수출입은행, KBS, 남수단 정부 'Smile Tonj Project' 후원
 2012년 2월 28일 남수단 학생 존 마엔 루벤, 토마스 타반 아코트 의예과 1학년 입학
 2012년 5월 11일 제2회 부산 서구 남부민2동 '이해·배려·나눔의 참사랑 실천의 날' 행사 참여(의료봉사)
 2012년 6월 7일 백인제기념도서관 내 '이태석 신부 기념실' 개관 및 흉상 제막
 2012년 6월 13일 의과대학 1층 로비 흉상 제막
 제2회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 '의사의 삶: 소통과 나눔'

이번 故 李泰錫 신부의 흉상 제작과 설치를 위해서 평소 신부님을 흠모하고 신부님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제가족 및 의과대학 동문 1,780명이 성금 모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흉상 제작을 해 주신 김영원 조각가님,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끈벰뚱알 프란치스코회 이태영 신부님, 살레시오회 백광현 신부님, 3회 졸업생인 안정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故 李泰錫 신부의 흉상 제작과 설치를 처음 제안하시고 지원을 해 주신 백낙환 이사장님, 흉상 제작은 물론 이태석 신부 기념실을 같이 개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이원로 총장님, 흉상 제작과 제막식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수단어린이장학회 이재현 이사장님, 3회 졸업생이신 양종필 부산사람 이태석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님, 김기용 의과대학 전임 학장님, 장구락 인제대학교 총동창회장님, 김준홍 전임 의과대학 동창회장님, 엄호기 신임 의과대학 동창회장님, 백수경 부이사장님, 이중우 부총장님, 백진경 디자인대학장님, 박재섭 백인제기념도서관장님,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김택중 교수님, 부산백병원 홍보실 김현정님과 백인제기념도서관, 의과대학 교학과, 부산백병원 시설부 등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故 李泰錫 신부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신부님의 사랑과 정신은 우리 모두들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인제가족, 선후배 동문, 후배 학생들 모두는 신부님의 아름답고도 헌신적인 삶을 항상 기억하면서 '소통, 나눔, 무한한 인간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어 모든 이에게 꿈과 희망, 평화와 안식을 주고자 盡力하신 신부님의 '治癒의 리더십'을 본받아 우리 사회와 아프리카 남수단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이를 실천하도록 모든 仁濟인이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6월 1일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병주

“꼭 신부가 아니더라도 의술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꼭 신부가 되실 결심을 하셨나요?”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들이 많은데 왜 그 먼 아프리카까지 가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자주 받는 질문들이다. 7년 이상을 이런 내용의 질문을 계속 받아 왔지만 지금도 시원하게 답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얼버무리고 만다. 이런 질문을 받고 나면 돌아서서 혼자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해 보지만 특별하게 딱 부러지는 답을 찾기가 힘들다.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 왔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작게 나에게 영향을 끼친 내 주위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들 때문이 아닌가 싶다.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곧 나에게 해 준 것이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 의사로서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도 그랬다. 그리고 어릴 적 집 근처에 있었던 ‘소년의 집’에서 가난한 고아들을 보살피고 몸과 마음을 씻겨 주던 소 신부님과 그곳 수녀님들의 헌신적인 삶의 모습도 그랬으며, 일찍이 홀로 되어 덜렁 남겨진 10남매의 교육과 뒷바라지를 위해 눈물은 뒤로한 채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의 고귀한 삶도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한 아름다운 향기였다.

‘향의 종류와 세기의 정도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향기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자기장과 비슷한 그런 향기 말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런 향기가 서로 얽혀서 알게 모르게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 이태석 저,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2009, 179~180쪽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의 향기가 서로 얽혀서
알게 모르게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김해캠퍼스 (621-749)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 TEL 055-334-7111

부산캠퍼스 (614-73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인제의대 내) | TEL 051-890-6625

학 교 법 인 (100-748)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1 인당관 | TEL 02-2270-0515

홈 페이지 <http://www.inje.ac.kr> <http://med.inje.ac.kr>